

일본을 알면 '한국' 이 보인다

비교문화사적인 일본론 등 다양한 '문화론' 등장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에서 일본을 다룬 《젓가락 사이로 본 일본문화》(교보문고, 1997)의 '머리말'에서 노성환 교수(43, 울산대 일어일본학과)는 일본 연구의 양상을 몇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는 적국으로서의 일본 연구다. 임진왜란에 포로가 되어 일본 억류생활을 기록한 강항의 《간양록》과 임란 이후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의 체류기인 《해행총록》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한국사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는 일본연구로 《일본 속의 한국문화》 《일본은 한국이더라》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일본을 배우려는 입장에서 행해진 연구다. 에스라 보겔의 《저팬 이즈 넘버 원》이 대표적이다. 넷째는 순수하게 일본을 바라보는 연구다.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과 박준희의 《확대지향의 일본인》을 예로 들 수 있다.

지피지기'를 위한 연구서 출발

'일본론' 또는 '일본문화론'의 유형도 이와 비슷하다. 이 방면의 고전으로 통하는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을유문화사, 1974)은 '지피지기(知彼知己)'를 위한 연구에서 비롯됐다. 제2차 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인 1944년 여름 미 국무부는 당시 저명한 문화인류학자였던 루스 베네딕트에게 교전 상대국 일본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다. 이와 관련해 을유문화사 편집국의 김정선 대리(32)는 "꽤 알려진 것이지만, 베네딕트 여사가 현지답사 없이 탐문과 자료에 의존해 역작을 완성시킨 점이 이 책에 얹힌 일화"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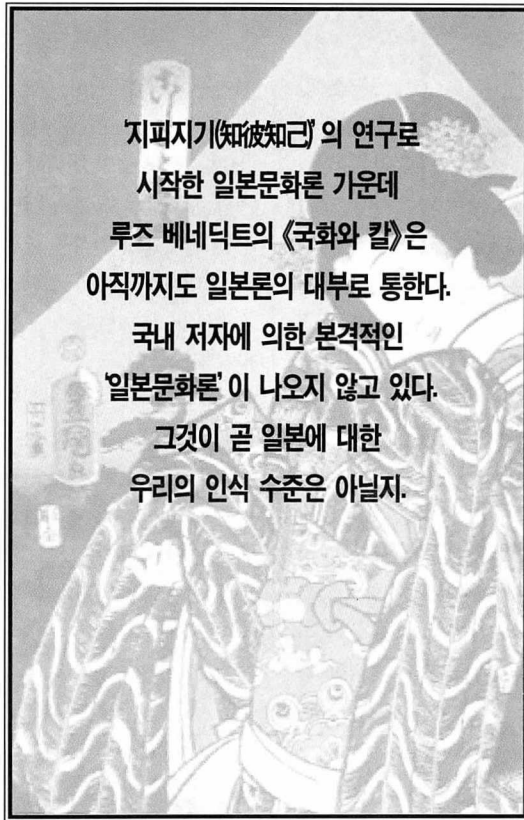
이 책은 전쟁이 끝난 이듬해 완성되었고,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독보적인 일본 입문서로 오늘까지 군림하고 있다. 전쟁상황에서 씌어진 것이지만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한 점이 오래도록 신뢰를 받는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일본인이 갖고 있는 상반된 성격에 대한 서술은 즐겨 인용되는 구절이다. "일본인은 최고도로 공격적이지 비공격적이며, 군국주의적이고 탐미적이며, 불손하면서도 예의바르고, 완고하면서도 적응성이 풍부하며, 유순하면서도 귀찮게 시달리면 분개하며, 충실하면서도 불충실하며, 용감하면서도 겁쟁

이며, 보수적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맞이한다."

《국화와 칼》은 '군수용'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사심없는 일본론의 '대부'로 통한다. 고려원의 기획시리즈 '니폰 마인드'에는 《국화와 칼》의 계보에 들어가는 책이 여러권 있다. 시바 료타로의 《일본, 일본인 탐구》, 시바 료타로와 도널드 킨의 대담을 엮은 《세계 속의 일본, 일본 속의 세계》, 그리고 E. M. 레인폴드의 《국화와 가시》가 그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비교 검토한 책들도 일본문화론의 한줄기를 이루고 있는데 김용운 교수(한양대 수학과 명예)의 업적이 눈에 띈다.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한길사, 1985)로 일생의 주제에 대해 운을 떼 뒤, 94년 4부작 《한국인과 일본인》(한길사)을 내놓았다. 실로 40여년의 세월을 투여한 4부작의 첫째권 '칼과 붓'은 한국과 일본의 현상적인 차이점을 다뤘다. '눈물과 죽음의 미학'과 '같은 씨앗에서 같은 꽃이 핀다'는 제목이 붙은 둘째권과 셋째권은 쇄국정책이 끼친 영향과 쇄국 이전의 민족성을 살폈다. 넷째권인 '정착과 정복'은 원형론의 관점에서 한·일 양국 문화의 전개 양식을 고찰했다.

비교문화사적인 일본문화론도 수요가 많다. 재일사학자 이진희씨의 《한국과 일본문화》(을유문화사, 1982)는 그 중 하나. 이 책은 일본 사학계의 광개토태왕비문 해석에 대한 논박을 담고 있는 한편, 고대 한일관계



를 문화의 전수를 중심으로 짚었다.

경제대국 일본의 성장 모델을 따르려는 '일본 배우기' 서적들은 일본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킨다. 그런 점에서 《일본은 없다》(지식공작소)에 도전장을 낸 《일본은 있다》(고려원)를 이 범주에 넣을 수도 있겠

다. '일본'이라는 아이템은 수지가 맞는 장사다. 때문에 일본관련서는 튀는 제목을 붙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현상은 '없다'와 '있다'가 많은 독자를 끌어모으자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일본은 있다 없다가 넘어서》라는 제목이 출현하는가 하면, '말하기' 시리즈도 등장했다. 《일본은 말한다》 《일본은 말하고 싶다》 《선불리 일본을 말하지 말라》 등. 《일본의 본질을 묻는다》가 미흡했던지 《일본의 본질을 다시 묻는다》도 나왔다.

일본 배우기에서 '읽기' '알기' 까지

'일본 배우기' 서적은 최근 1~2년 사이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따라가기의 형태가 '배우기'에서 '읽기'나 '알기'로 바뀌었고, 독자군은 중장년층에서 신세대로 교체되었다. 이런 흐름은 영화감독 이규형씨가 주도했다. 일본의 히트상품이나 유행산업은 그것이 우리의 취향을 크게 거스르지 않는 한 반년이 지나면 한국에서도 유행한다는 것이 세간의 속설이다. 이감독의 《일본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가서원, 1996)는 그런 속설을 적극 포착해 신세대의 구미에 맞도록 만든 것이다.

'일본문화론'의 연성화가 두드러지지만 이런 흐름에 배치되는 책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도쿄이야기》(이산, 1997)는 도쿄라는 도시의 변모과정을 일상생활에 초점을 맞춰 추적했다. 《죽어가는 천황의 나라에서》(창작과비평사, 1995)는 일본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물랑 바르트의 독특한 책 《기호의 제국》(민음사, 1997)은 일본문화를 텍스트로 삼은 평론집이다.

국내 필자에 의한 본격적인 '일본론' '일본문화론'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몇몇 눈에 띄는 책들도 전문 연구자가 맺은 결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이런 현상의 원인을 일본을 연구하는 전문가에게만 돌릴 수도 없을 것 같다. 그것이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 일반의 인식 수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볼 일이다. 일본의 문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일본 사회를 이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통' 두 사람이 이런 관점에서 참고도서를 추천했다. 번역가 박이엽(62)씨는 꼭 번역됐으면 하는 책으로 이로카와 다이키치의 《소화사(昭和史)》- '세상편'을 들었다. 신문사회면을 통해 일본 사회의 변천을 정리한 책이다. 박이엽씨는 책에 나오는 사건들이 30여년 후 우리 사회에도 실제로 벌어져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한국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일본유학생 사나다 히로코(眞田博子)씨(36, 인하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는 소설가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를 거명했다. "사카구치 안고는 《타락론(墮落論)》 《일본문학사관(日本文學私觀)》 등의 에세이를 통해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그의 에세이는 쉽고 재치있는 말로 일본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가라타니 고진도 그 중 한사람이다. 특히 사카구치가 고대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 에세이는 김달수가 일본 속의 한국문화를 발굴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최성일)